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탐라악(耽羅樂) 기반 구축 연구

'탐라악(耽羅樂) 기반 구축 연구'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사단법인 제주작곡가협회가 진행한 연구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진은 현,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국립국악원 전문위원인 조영배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김예지(모던아트 대표), 서지선(제주작곡가협회 이사), 임재규(제주작곡가협회 회장) 그리고 필자가 함께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오키나와의 음악과 제주 음악을 비교 분석해 탐라악의 기반과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성격은 탐라악을 어떻게 규

정할 것인지의 범주적인 문제와, 그렇게 규정된 탐라악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점으로, 오키나와 악(樂)의 실제적인 상황을 제주의 탐라악 규정과 실제적 실현의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래 이 사업은 통시적 관점에서 오키나와 음악과 제주음악, 이른바 탐라악의 역사적 관련성에 대한 관점이고, 공시적 관점에서의 오키나와의 음악과 제주음악의 실제적인 비교의 관점이다. 이와 관련된 이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키나와의 역사적인 여러 음악적 사실들과 제주음악의 관련성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오키나와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오키나와 음악'은 제주음악과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그리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오키나와

음악'을 통해 제주음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중요한 키워드를 찾을 수는 없었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인 틀이다. 이 사업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도라악이나 그 밖의 제주음악관련 역사적 사료들과 오키나와 음악(특히 궁정음악)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일, 그리고 제주와 오키나와 민속음악(민요를 중심으로)과 제주민속음악(민요를 중심으로)의 비교와 차이점을 밝히는 일,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탐라악'이라고 이 사업에서 규정하는 제주다운 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이 됐다. 이 사업의 바탕은 속 일본서기의 도라악(度羅樂)과 제주와 오키나와의 지형학적인 면 그리고 지금까지 정의된 바 없는 '탐라악'을 기반으로 제주다운 이른바 미래 지향적 '탐라악'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다루고 있다. 방대한 양의 자료와 연구 과정을 거친 '탐라악(耽羅樂)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는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반성과 모색 그리고 실제적 제시를 담고 있다. 제주를 사랑하고 삶의 질과 더불어 모든 삶의 양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정치가, 행정가, 교육자, 예술가 그리고 도민들의 마음은 한마음이라 생각한다. '탐라악(耽羅樂)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가 예술계를 넘어서 실제적 구현을 위한 정치와 행정 그리고 제주도민의 화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 상황과 시간 그리고 예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헌신과 열정을 바친 조영배 책임연구원과 함께한 모든 연구진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

사설

수능 이틀 앞... 편의지원·특별방역 앞장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치러질 올해 수능시험은 수험생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지원대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특별방역에 최우선 해야 할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과 그 가족의 안전한 시험 응시에 '비상'인 까닭입니다. 수험생과 그 가족만이 아닌 온 도민이 함께 '안전한 수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 특별방역 대책으로 고3 수험생들의 등교수업을 중단시킨 채 시험실 각 책상마다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시험실 및 인력 추가 확보, 자가격리 수험생 대책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고등학교 수험실에 책상마다 설치되는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는 수능과정에서 혹시 모를 수험생간 비말 등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실 수험생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일정 간격 확보를 하고, 감독·방역인력도 1496명에서 1820명으로 늘렸습니다. 각 시험장별로 방역대책 외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과 병행시험장도 마련했습니다. 전 도민의 동참은 더 절실합니다. 도민 모두가 수험생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이번주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멈춰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잠재우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지원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자동차 경적이나 건설공사 현장 등을 통한 소음자제와 안전한 수송대책, 수험생 응원전 자체 등도 필요합니다. 수능은 수험생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시험입니다. 도민들 모두 내 아이가 수능을 본다든 마음가짐으로 '안전한 수능'을 위해 특별방역과 여러 편의 지원에 적극 함께 하길 기대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관광업계 한숨 커진다

제주 관광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관광산업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를 다녀간 단체관광객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는 등 n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관광업계가 또다시 시름에 빠졌습니다. 제주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2만8094명으로 전년 동월(3만9484명) 대비 28.8%나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81만3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4만516명이 제주를 찾은 겁니다. 그랬던 제주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27만3548명입니다. 하루 평균 3만41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달 초 50% 중반대이던 도내 호텔 예약률은 4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펜션은 4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0% 이상의 가동률이던 렌터카는 50%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전세버스는 20% 수준의 가동률에서 다시 5%대로 급락하는 등 관광업계의 피해가 적잖습니다. 제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국내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내도 관광객은 전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제주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심리도 얼어붙고 있어 지역경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마당

화목보일러 안전한 사용법



김철우 서귀포소방서 호년119센터

화목보일러는 초기 설치 비용만 있으면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열감을 연료로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꾸준한 사용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이면엔 화재의 위험성 항상 존재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연통이 과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거나 나무가 타며 생기는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아래의 화재 예방 방법을 숙지해 전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열감을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

선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열감을 쌓아 둔다. 주변에 쌓아둔 열감으로 편하게 보일러를 운영할 수 있지만 화재 발생의 주범이 된다. 둘째, 화목보일러 주변에 방화수 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화재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더 큰 피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에 다량의 연료를 투입하거나 불을 지퍼둔 상태로 장시간 외출하는 등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화재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연료만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는데 이때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어 재발화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집은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한다.

뉴스-in

'관계홍보' 논란 2공항 홍보 책자 배포 중단

도 "도민의견 수렴 검토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계홍보' 비판을 받은 제2공항 추진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 책자 및 영상물 배포를 지난달 30일부터 중단.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 통해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홍보에 대해 보다 엄밀하게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도는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하게 참여하고, 향후 원활한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점언. 오은지기자

에·회방퇴직을 접수받을 예정으로 앞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관련 공고를 낼 예정. 도내 한 금융권 인사는 "주식 투자열풍과 초저금리로 은행수익은 늘어났지만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 고대로기자

도로 제설작업 준비 마무리

○...서귀포시가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하면서 동절기 대비 도로 제설대책 사전준비 작업을 한 달 빠르게 마무리. 서귀포시는 차량 통행이 많지만 경사가 심해 눈날씨가 되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강창학경기장 인근 중산간도로 경사구간 1.2km에 2억원을 들여 자동 염수분사장치를 설치.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갈리보고회 인근 1.0km구간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면서 폭설 초기 선제 대응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 현영종기자

금융권 코로나날 구조조정

○...금융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달 또는 내년으로 명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 장 강대경(1959. 6. 7생)
최후주소 : 제주시 가림로 72, 101호(이도동, 태성리제비)
상기자는 2020년 8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1월 18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6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감골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미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질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빙의·신들림 증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림종묘
010-3690-2453

자원종묘
010-2691-1883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